

한·‘조문·북핵정국’ 해법 못찾아 전전긍긍

盧前 대통령 서거

여당인 한나라당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4·29 재보선 참패 이후 쇄신특위를 가동하고 안상수 원내대표 체제를 출범하는 등 국민에게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려 의욕적이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 등 정국을 뒤흔드는 폐가론급 압초를 만나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다.

당의 한 중진의원은 26일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이어 북한의 핵실험으로 정국운영의 퇴로가 꽉 막힌 상황”이라며 “화불단행(禍不單行·재앙이 겹쳐 옴)이라더니 바로 그 짹”이라고 말했다.

가장 괴로운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검찰 수사에 대한 역풍이 불면서 민심이 여권에 싸늘하게 식고 있다는 점. 그렇지 않아도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 입법’과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를 놓고 야당과 싸울 일이 고민이었는데 더욱 힘들게 됐다는 것이 당 안팎의 일반적 전망이다. 일부에선 두 법안의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라 관습까지 나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남북문제는 둘어길 수 없는 비관적 상황으로 점점 빠져들었다.

문제는 이 같은 ‘시계 제로’의 정국에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꺼내들 묘책이 별로 없다는 데 있다.

한 핵심 당직자는 이날 “솔직히 정국을 해쳐나갈 유력한 패가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어려울 수록 단순하고 원칙에 맞는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문·정국에는 신중하게, 북핵문제는 단호하게’라는 원론적 해법이 유일한 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신문로 역사박물관에 마련된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 역풍으로 민심 이반 고민

北 2차 핵실험 향후 정치권 ‘안갯속’

응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일단 모든 정치일정을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열리는 29일 이후로 연기하고 최대한 예우를 갖춰 애도하면서 정치적 언행을 조심하고 있다. 새로운 원내지도부 구성과 사무총장 등 당직 인선도 영결식 이후로 연기했고, 28일부터 이를간 열기로 했던 의원 연찬회도 6월로 넘겼다. 전날

조문차 봉하마을을 찾았다가 일부 노 전 대통

령의 지지자들의 저지로 조문을 못한 박희태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이날 서울 역사박물관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반면,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다. 북한의 ‘내결적 자세’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윤상현 대변인은 “이번 핵실험은 북한이

이제 핵개발 상태가 아니라 핵보유 단계로 진입했다는 방증”이라며 “유엔과 한미공조를 통해 대북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발표와 관련, “시의 적절한 조치”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당 내부에서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전날 북한 핵실험 발표 뒤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작권 전환 전면 재검토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친박(친 박근혜) 좌장적인 김무성 의원 간 관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김무성 추대 카드가 박 전 대표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불편한 관계에 빠진 이후 또다시 한 언론에서 ‘결별설’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 신문은 26일 “박근혜-김무성 결별 수순 밟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박 전 대표가 한 측근에게 “(김 의원이) 친화를 하다 괴해됐다고 하면 하여 이전 친박 그만하고 하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실제로 김 의원의 원내대표 카드가 무산됐을 때 주변에서는 “김 의원이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 “당분간 박 전 대표와의 사이가 소원해질지도 모른다”는 말들이 나왔다.

김 의원도 지난 20일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박 전 대표와의 전화통화 여부를 묻는 질

박근혜-김무성 “이상기류 없다”

박대표, 일부 언론 ‘결별설’ 정면 부인

문에 “통화한 일이 없다”, “먼저 전화를 걸 생각도 현재로선 없다”고 말해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박 전 대표가 김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에는 반대하면서도 같은 친박 성향인 최경환 의원의 정책위의장 출마는 사실상 끝 인해 김 의원이 ‘상처’를 입었다는 말도 들렸다.

당사자인 김 의원도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해 총선 공천 때 김 의원이 박 전 대표에게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박 전 대표 측근인 이정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보도가 나간 뒤 박 전 대표에게 확인을 했는데 ‘전혀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고 했다”면서 “분위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전하면 박 전 대표는 어려구나아워 했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김 의원도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해 총선 공천 때 김 의원이 박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친박 공천 희망자 리스트를 당시 이방호 사무총장에게 건넨 것이 두 사람이 멀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공천 관련 리스트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소원한 관계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지난 24일 박 전 대표와 일부 친박계 의원이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문을 위해 봉하마을을 찾았다는 귀경하는 길에 저녁식사를 함께했는데 이 자리에서 원내대표 경선에 대한 뒷이야기들과 함께 여러 가지 조언들이 나왔다는 후문이다.

한 친박계 의원은 “조만간 박 전 대표와 김 의원이 한번 만나지 않겠느냐”면서 “직접 만나 서로 한번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년만에 국회 공식 복귀

북핵 논의 외통위 출석

지난 4·29 재보선에서 당선된 무소속 정동영 의원이 5년 만에 국회에 공식 복귀했다. (사진)

26일 북한 핵실험 사태 대책 논의를 위해 긴급 소집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것. 그는 지난 2004년 4·15 총선을 앞두고 ‘노인 펌하’ 발언으로 비례대표직을 던졌다.

정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어느 때보다 업중한 정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외통위에서 활동하게 된 데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국민이 외교·안보·통일 분야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원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덜어드리도록 미력이나마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질의에서 정 의원은 “북한이 PSI 참여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개성공단도 단계적 폐쇄 조치에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지적하며 민주당 의원들과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4·29 재보선’ 이후 지역구인 전주에서 머물렀던 정 의원은 지난 24일 봉하마을을 노무현 전 대통령 빈소를 조문한 뒤 삼경했으며, 6월 국회 개회 전 까지 서울과 전주를 오갈 것으로 알려

졌다.

정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정면 충돌했던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의원회관 내 사무실이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위치인데다 정 대표와 같은 상임위에 배치돼 ‘어색한 동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회의 시작 전 이미경 사무총장 등 민주당 소속 외통위원들에게 약수를 청하며 ‘어색한 재회’를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연차 게이트’ 장례 후 신속 조사

檢 수사재개 ‘시동’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사흘이 지난 26일 검찰은 사건 초기 ‘초비상 상태’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차분함을 되찾은 듯한 분위기였다.

특히 입체진 검찰총장이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일 곧바로 사직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으나 ‘사태 수습과 박연차 게이트 사건 마무리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뒤늦게 사건이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당장 후폭풍이 몰아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친박계 의원은 “조만간 박 전 대표와 김 의원이 한번 만나지 않겠느냐”면서 “직접 만나 서로 한번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임 총장은 이날 정시 출근에 부서별 보고를 받는 등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수부 수사팀은 노 전 대통령 영결식 이후 최대한 빨리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 짓고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최소한

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판단,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검찰은 29일 노 전 대통령 영결식이 끝나면 곧바로 주말에 천신일 세종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김학송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3명과 김태호 경남도지사, 부산고법 P판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 등을 차례로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을 조사한 뒤 박연차·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박진·서갑원 의원 등 이미 조사한 인사들과 일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젊은 검사들을 중심으로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마무리되면 어떠한 식으로든 기준의 특수부 수사 방식에 대한 개선과 검찰 자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전의경 및 경찰행정학과 특제/남·여순경 공채 개강 매월 초(합격시스템)

경찰 전국 최강의 교수진 학과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명선

목장용지금매

- 위치 : 전남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 면적 : 6,390㎡(1,933평)
- 대지 : 476㎡(144평)
- 총계 : 3,734평
- 건평 : 2,350㎡(약700평) 건사, 돈사, 주택(104㎡) 버섯재배사 등 관리지역으로 필지는 여려 필지이나 한곳에 불어있음
- 매도가 : 1억7천만원 (은행대출 1억 포함)

연락처 ☎ 010-3617-8810

전문 메가경찰학원 전남여고 후문 학원가

www.gmega.co.kr ☎ 226-5050

= 합격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학원!, 無等과 만나세요!! =

7·9級 공무원 전국 최강의 교수진 학과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명선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 222-4560

30 40 주부반모집회원 교육기관별 경마철 교보보간봉소기 정행무세자원 철약공정호 견호지방승

시험일정 및 채용인원

- 시험일 : 국9급, 매년 4월 / 금, 7월 시험
국9급, 매년 6월 / 금, 9월 시험
- 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합격
영어 기본이 인된 수강생 합격
- 수강료 25% D/C 교재 15% D/C
수강료 50% D/C 교재 15% D/C

주제하지말고 1년 수강료 95만 원도전하면 합격의 지름길!

= 최선을 다하지 않고 꿈을 이루려는 것은 허영에 불과하다!! =

• 부대시설

- 경기장 300여석! - 구내식당
- 인력운송장! - 차량주차장!
- 운송식 화물창고 회선시설!
- 운송장 도로 및 강화 모래사 일자!

SINCE 1965 학원설립인가 제20회시험 10월 25일

44년 전통공인중개사 전국수석

광주지역 최다 합격자배출 (광주지역 3,200여명 1회~19회까지)

여성 최고의 전문직 아파트관리소장 주택관리사 9월 20일 시험

개강 6월 1일 (주·야 종합반 모집)
(현재상 달려수준)

본 학원 강의 과목

- 국어·영어·한국사·형광학·교통법·교통신체법·환경학·기계학·화학·민사법·민법·현대법·경제법·교통법·환경학·기계학·화학·민사법·민법·현대법·경제법
- 주간반 2개월, 아간반 3개월 원성

개강 6월 1일 (첫진도 시작반)

국비지원 선착순

직장인을 위한 수강료 환급과정

광주고시학원 본원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층 청담점 ☎ 971-0002 광주은행 청담점 4층